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 후기 생활사 교육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 전공
신 선 경

조선 후기 생활사 교육연구

오 종 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 전공

신 선 경

인 준 서

신선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1990년대 이래로 역사연구는 거시적 담론이나 구조적 분석으로부터 벗어나 이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미시적 관점에서의 문화와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 연구의 대상을 더욱 확대시키는 변화를 유발하고, 다양한 역사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생활사 연구가 활기를 띤 것도 그 영향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생활사 연구는 인간의 경험과 삶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사 교육은 역사 속에 나타난 과거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의 모습을 구현해 냄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적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여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생활사 교육은 다양한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추체험을 통해 과거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가 ‘과거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의 모습의 구현’을 추구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 아래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한 효과적인 생활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조선후기로 한정하였으며, 생활사의 분야가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경제사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사학계의 생활사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후기 생활사 서술 내용을 경제사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조선후기 생활사 교육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여 고등학교 한국사수업에서 효과적인 생활사 수업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사학계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생활사 연구가 꾸준히 진척되어왔으나 생활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은 채 생활사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생활사 교육 또한 독립적인 학습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6종 『한국사』 교과서를 경제사분야를 중심으로 생활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생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술은 드러나지 않았다. 생활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를 싣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생활사 교육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생활사 교육에 활용 가능한 문헌자료는 대부분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역본의 유무가 곧 활용가능성을 나타내었다. 비문헌자료의 경우 실물자료와 그림자료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문헌자료에 비해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가 존재하므로 그 활용가능성은 더 크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마련한 조선 후기 생활사 교육 방안은 학습지를 통해 다양한 문헌자료 및 비문헌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역사적 상상력과 사고력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추체험을 통해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문헌자료인 오회문의 『쇄미록』과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비문헌자료인 작자미상의 「경직도」, 김홍도의 「씨름」과 신윤복의 「단오풍정」 활용 하여 단오날 조선후기 사람들의 생활상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김홍도의 「씨름」은 이와 관련된 동영상자료 지식채널e의 『화인열전』을 활용하여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머리말	1
II. 생활사 연구성과	4
III. 『한국사』교과서의 조선후기 생활사 서술 분석	10
1. 목차분석	10
2. 본문분석	15
1) 농업의 발달	16
2) 수공업의 발달	26
3) 광업의 발달	28
4) 상업의 발달	30
IV. 생활사 교육 자료	38
1. 문헌자료	38
1) 일기류	38
2) 편지류	43
3) 고전소설	45
2. 비문헌자료	46
1) 실물자료	46
2) 그림자료	48
V. 생활사 교육 방안	50
VI. 맺음말	61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6종 『한국사』 교과서별 목차구성	11
<표2> 6종 『한국사』 교과서별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자료	15
<표3> 6종 『한국사』 교과서별 모내기법 관련 서술	17
<표4> 6종 『한국사』 교과서별 보부상 관련 서술	31
<표5> 미래엔의 교과서 대단원의 내용구성	51
<표6> 생활사 학습 수업지도안	57

I. 머리말

역사연구는 인간의 경험과 삶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역사연구는 역사의 주체인 인간은 소외된 채 거대 담론에만 몰두하여 정치사나 제도사 위주의 구조적 분석이나 문헌 고증이 역사의 전부인 듯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역사는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며,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만나는 역사 또한 재미없고 따분한 시험을 보기 위해 그저 암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최근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사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생활사에 주목하였다.

새로운 경향의 역사학은 관심을 ‘구조’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경험’으로 관심을 옮겼다. 이들은 연구 주제 또한 민중의 의식, 결혼과 성, 가족과 공동체, 신화, 축제, 집단 심리, 종교의식 등 이전에는 사소하다거나 의미 없다고 여겼던 부분들에 주목하였다.¹⁾ 역사가 과거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다양한 삶과 나아가 그들이 사회의 제반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생활사란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생활양식, 그리고 그 변화상을 추구하는 역사연구의 한 분야이다.²⁾ 즉 생활사는 과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삶의 흔적을 추적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던 일상의 삶에 대해 밝혀냄으로써 역사에서 사람이 남긴 자취를 찾으려는 연구경향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일상을 중심에 두고 연구하는 생활사는 인간의

1)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2008, 401쪽

2) 우인수,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 23·24합본, 역사교육학회, 1999, 826쪽

경험을 중시하며, 역사적 사건의 행위자로서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³⁾ 동시에 기존의 역사연구에서 등한시되었던 평범한 보통사람 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전체적으로 역사의 균형 잡힌 이해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⁴⁾

생활사는 이와 같이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사에 대한 교육은 역사교육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의 역사를 다루는 생활사 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헌자료 및 비문헌 자료에까지 사료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교육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역사 속에 나타난 평범한 사람들, 사소한 일상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으며, 기존의 경제사·사회사·문화사 등에서 다루지 못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통한 효과적인 생활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사는 역사학의 각 분야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경제사 분야의 생활만을 다루기로 한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조선후기로 한정한다. 이는 조선후기가 다른 시기보다 비교적 생활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교육에 활용 가능한 자료가 풍부하며, 현재시점과 비교적 가까운 시기이므로 학생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사학계의 생활사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역사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인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서 조선후기 생활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경제사 분야의

3) 문기상, 「일상생활사」, 『역사교육』 57, 역사교육학회, 1995, 64쪽

4) 우인수, 앞의 논문, 820쪽

5) 전국역사교사모임, 앞의 책, 399쪽

생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선후기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을 위한 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조선후기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을 위한 수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과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생활사 연구 성과

1990년대 이래로 역사 연구의 탈이념화,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역사의 서술 형식이 다양해졌다. 연구의 초점 또한 정치, 경제, 사회에서 사상과 문화, 일상생활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들이 새로운 역사학의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를 체계화하려는 기존의 거대 담론이 수그러들고, 서술방식 다양화의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⁶⁾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사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사학계에서 생활사 연구에 주목하기 시작한 까닭에 대해 우인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그 동안 정치·경제·사상·사회사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생활사 분야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이루어 졌다는 것, 둘째, 서양사학계의 일상생활사의 영향이 자극이 되었다는 것, 셋째, 생활문화에 대한 문화인류학계, 민속학계, 가정학계 등의 연구가 한국사학계에 생활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 넷째, 북한학계의 생활사 연구로부터 일정한 시사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적 여유를 찾는 이들이 과거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분위기가 고취되었다는 것이다.⁷⁾

한국사학계에서 생활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생활사 관련 연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살았을까』 시리즈, 『조선시대 생활사』 시리즈 등 다양한 생활사 관련 책들이 출판되면서 부터이다.⁸⁾

6) 김인걸, 「현대한국사학의 과제」, 『20세기역사학, 21세기역사학』, 역사비평사, 2000, 50쪽

7) 우인수, 앞의 논문, 828쪽~829쪽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출판한 생활사를 본격적으로 표방한 저작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2』(1996)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당시의 역사상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네 부문에 걸쳐 망라하여 조선시대에 인구가 얼마쯤 되었으며, 한 냥으로 쌀을 얼마나 살 수 있었는지, 하루에 몇 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부녀자들의 의복에 유행현상은 어떠했는지 등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서문에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 까지 역사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사회 구성원 전체의 역사로, 딱딱한 제도의 틀에 갇히지 않고 삶의 실상을 알려주는 역사로, 흥미 위주가 아닌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역사로 조상들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전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생활사 연구의 흐름을 이어받으며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1999)를 통해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별 접근을 통해, 또한 여성의 구체적 삶을 통해 여성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이 책에서 이배용은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의 역사를 복원함과 동시에 여성생활사의 진면목을 파헤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자 이 책을 기획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생활사』시리즈 편찬과 관련하여 이 책에서 박병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한 근본적 일차사료인 고문서를 통해서 우리 선인들의 생활사를 생생하게 그려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생활사1』(1996)에서는 주로 고문서를 활용하여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 신분별 생활상, 제도와 생활, 경제생활 범주로 나누어 생활사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고문서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의·식·주 등의 영역이 배제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8) 강선주, 「生活史 教育의 來歷과 方向」, 『역사교육』 95, 역사교육학회, 2005, 145쪽

『조선시대 생활사 2』(2000)는 규범적 성향의 관찰자료보다는 설화류나 소설류, 문학 자료 등을 이용하여 이전보다 더 세부적으로 주제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출생·성장과 사망, 부부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 풍속에 까지 그 주제가 확대되었으며, 각 신분층의 혼인과 부부생활, 상례와 시묘살이, 기제사와 묘제, 양반의 벼슬살이와 수입, 세시풍속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생활사 3』(2006)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인간생활의 기본 영역인 의식주를 소재로 그려놓았다. 고문서로는 한계가 있었던 구체적인 의식주의 모습을 구현해 내기 위해 조선후기 풍속화 등의 그림을 활용하여 신분별 의식주 생활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신병주·노대환은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2002)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소설을 통한 역사 읽기를 시도하여 조선시대의 사회와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환술과 기예에 능하고 귀신을 잘 부렸다는 전우치의 행적을 기록한 『전우치전』은 도가 사상이 유행했던 16세기 사상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역관인 변씨의 지원을 받아 큰 부를 누리게 되는 허생의 이야기 『허생전』은 조선후기 도시와 상업의 발달, 역관의 지위 상승이라는 18세기 후반의 경제생활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2011)에서 정창권은 고대 삼국에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조 말기까지 2000여 년의 역사와 문학, 회화, 음악, 법률, 풍속 등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기록들을 가능한 모두 수집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사를 구현해 내고 있다. 이 책에는 전근대 시대에 장애인 과연 무엇이었는지,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단체는 어떠한지, 각 유형별로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장애인의 직업이나 관직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등이 담겨있다. 이로써 역사서술의 초점이 일반

민중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까지 확장되어 생활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행본의 출간에서 비롯된 생활사 연구는 기존에 주로 이용되었던 관찰자료 뿐만 아니라 일차 사료로 취급되지 못하던 사적인 기록물이나 문학 작품 등을 활용하여 과거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복원해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하고 있다. 특히 일기류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도드라졌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김경숙은 『목재일기』를 통해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에 대해 연구하여 이문건의 기제사를 지낼 때에 3대와 함께 처부모, 외조부모의 제사를 지냈음을 밝혔다.⁹⁾ 송재용은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분석하여 16세기의 관·혼·상·제례를 연구¹⁰⁾하였고, 백혜리는 『목재일기』를 통해 조선 중기 아동들의 생활에 대해 연구¹¹⁾하였다. 이성임은 『미암일기』를 통해 16세기 양반관료의 수입의 대부분이 선물의 수증에 있었으며, 필요한 물품 상당부분을 선물로 조달하였음을 밝혔다.¹²⁾ 김성희는 『쇄미록』을 분석하여 16세기 가장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¹³⁾하였고, 최근에 이루어진 『노상추일기』에 관한 연구로는 김성우의 노상추가의 사회경제적 생활상에 대한 연구¹⁴⁾, 정해은의 조선후기 무신의 무과 급제의 과정과 승진, 중앙 관료생활에 대한 연구¹⁵⁾, 이정수의 노상추가의 재산변동과 농업경영에 대한 연구¹⁶⁾를

9)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 -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일지사, 2000

10) 송재용,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관·혼·상·제례」, 『한문학논집』 제30집, 근연한문학회, 2010

11) 백혜리, 「『목재일기』에 나타난 조선 중기 아동의 생활」, 『유아교육연구』 제24권, 한국유아교육학회, 2004

12) 이성임, 「조선중기 유희층가의 물품구매와 그 성격」, 『한국학연구』 제9호,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8

13) 김성희,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장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한국가정관리학회, 2000

14) 김성우, 「19세기 초반 노상추(盧尙樞)의 백운동 별업(別業) 조성과정과 경영」, 『역사와 현실』 제7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15) 정해은, 「조선 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 『한국사연구』 제143호, 한국사연구회, 2008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사 연구는 생활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민속학·복식사·제도사·경제사·사회사·문화사 등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생활사가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 분과나 연구방법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지금까지의 생활사 연구에 대해 “우리가 이룬 성과들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며 학계간에도 이렇다할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었다.¹⁸⁾

역사교육에서의 생활사 교육 연구는 초등 역사 교육에서부터 활발히 논의되었다. 강선주는 초등학교 생활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고,¹⁹⁾ 최석조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바탕으로 한 생활사 교육을 연구하였다.²⁰⁾ 중등 역사 교육에서의 생활사 교육연구로 임하영은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를 그 예로 하여 생활사 교육을 위한 교재를 재구성하였고²¹⁾, 최근에 임금섭은 고등학교 7차 국사교과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사수업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생활사 교육을 연구하였다.²²⁾

한국사학계의 생활사 연구가 진척되면서 생활사 교육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생활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생활사 교육 또한 독립적인 학습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생활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16) 이정수, 「조선 후기 노상추가의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 제29호, 부경역사연구소, 2011

17) 강선주, 앞의 논문, 145쪽

18) 정연식, 「한국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2009, 291쪽

19) 강선주, 「생활사 교육의 내력과 방향 -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 영역의 내용 구성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제95집, 역사교육연구회, 2005

20) 최석조, 「초등 사회과 생활사 학습에서 김홍도 풍속화첩의 활용 가능성」,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21) 임하영,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교재 재구성 - 조선후기 신분질서의 변동을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2) 임금섭, 「고등학교 국사교과의 생활사 수업방안 : 조선시대 생활사를 중심으로」,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할 것이며, 이를 역사교육에 도입하여 어떻게 생활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양적·질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Ⅲ. 『한국사』교과서 조선후기 생활사 서술 분석

어떤 분야의 역사교육에서나 그렇듯이 생활사 교육에서도 그 바탕이 되는 도구는 교과서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는 6종의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통용되고 있다.²³⁾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조선후기 생활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현행 6종 『한국사』 교과서에 조선후기 생활사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생활사는 역사학의 각 분야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만을 다루기로 한다.

조선후기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에 대한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은 목차분석과 본문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6종 『한국사』 교과서별 목차를 분석하여 조선후기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가 목차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그 생활사 서술 내용을 농업의 발달, 수공업의 발달, 광업의 발달, 상업의 발달로 주제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목차분석

조선후기와 관련된 대단원은 ‘Ⅲ.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23)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0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0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0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0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0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법문사, 2010

접근'이다. 그 가운데서 조선후기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소단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색칠한 부분이 그에 해당한다. 제시된 목차만을 보고서는 경제사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제 기술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본문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표1> 6종 『한국사』 교과서별 목차구성

Ⅲ.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출판사	목 차	
미래엔	2. 조선에서도 근대의 기운이 움트다	(1)영·정조, 탕평책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다
		(2)국제적인 평화 분위기가 펼쳐지다
		(3)민심 수습을 위한 수취 체제의 개편
		(4)피지배층, 생산력 증대에 노력하다
		(5)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6)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
		(7)실학, 부국안민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다
		(8)문화의 주체가 다양해지다
삼화출판사	4. 농업과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다	(1)모내기와 견종법이 보급되다
		(2)사상이 늘어나다
		(3)신분제가 흔들리다
	5.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	(1)너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다
		(2)서민 문화가 성장하다
지학사	1. 조선후기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3)실학자들 개혁을 주장하다
		(1)제도 개편과 정치 변화
		(2)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회 변동
비상교육	1.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	(3)문화의 새기운
		(1)붕당 정치의 전개와 통치 제도의 개혁
		(2)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관계 발생
		(3)무너지는 신분제

		(4)사회개혁을 담은 실학이 등장하다
		(5)서민문화의 발달과 민중 의식의 성장
천재교육	1. 조선후기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1)양 난 이후 체제를 다시 정비하다
		(2)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흔들리다
		(3)실학과 서민 문화가 발달하다
법문사	1. 근대 사회를 향한 움직임	(1)통치 질서의 변화
		(2)상품화폐경제의 발달
		(3)신분질서의 해체
		(4)실학의 발달과 민중 의식의 성장

이하 6종의 『한국사』 교과서 각각은 서술의 편의를 위해 약칭하고자 한다. 미래엔의 교과서는 ‘가’, 삼화출판사의 교과서는 ‘나’, 지학사의 교과서는 ‘다’, 비상교육의 교과서는 ‘라’,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마’, 법문사의 교과서는 ‘바’로 칭하기로 한다.

목차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단원은 ‘Ⅲ.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으로 동일하나 중단원과 소단원의 제목은 물론이고 그 수도 각각 서로 다르다. 그 까닭은 대단원만을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중단원 이하의 필자의 재량에 맡긴 데 있다. 따라서 중단원의 제목은 교과서별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6종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후기와 관련된 중단원의 제목을 살펴보면 교과서 모두 조선후기를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근대로 이행하는 단계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라’는 중단원의 제목을 ‘근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라 하였고, ‘나’는 비상교육의 교과서의 중단원과 같이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농업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중단원의 제목을 사용하여 조선후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각각에서 조선후기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찾을 수 있는 소단원을 살펴보면 ‘가’의 경우 중단원 ‘2. 조선에서도 근대의 기운이 움트다’를 총 8개의 소단원으로 분류하고, 그 중 ‘(4)피지배층, 생산력 증대에 노력하다’와 ‘(5)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6)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 ‘(8)문화의 주체가 다양해지다’에서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소단원 ‘(4)피지배층, 생산력 증대에 노력하다’, ‘(5)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다’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부분이 나타나 있음을 제목에 암시되어 있다. 반면 ‘(6)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 ‘(8)문화의 주체가 다양해지다’에서는 분명하게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부분이 분명하게 제목에 드러나 있지는 않다. 조선후기 사회사를 다루고 있는 ‘(6)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에서는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광작이 가능해 지면서 부농이 일부 등장하게 되고 이들은 축적한 부를 이용하여 신분상승의 기회를 잡게 된다는 내용을 싣고 있어 일부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문화사를 ‘(8)문화의 주체가 다양해지다’에서도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으로 서민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는 내용을 싣고 있어 일부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경우 중단원 ‘4. 농업과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다’와 ‘5.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에서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중단원 ‘4. 농업과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다’는 소단원을 총 3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1)모내기와 견종법이 보급되다’, ‘(2)사상이 늘어나다’에서는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후기 사회사를 다루고 있는 ‘(3)신분제가 흔들리다’에서는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부분이 분명하게 제목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일부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단원

‘5.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소단원을 총 3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조선후기 사상사·사회사를 다루고 있는 ‘(1)너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냐’, 조선후기 문화사를 다루고 있는 ‘(2)서민 문화가 성장하다’에서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1)너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냐’에서는 부를 축적한 상민들은 자식을 서당에 보내 교육시키고 스스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다’의 경우 중단원 ‘1. 조선후기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을 총 3개의 소단원으로 분류하고, 그 중 조선후기 경제사와 사회사를 다루고 있는 ‘(2)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회 변동’과 조선후기 먼 문화사를 다루고 있는 ‘(3)문화의 새 기운’에서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라’의 경우 중단원 ‘1. 근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을 총 5개의 소단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조선후기 경제사를 다루고 있는 ‘(2)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관계 발생’, 조선후기 사회사를 다루고 있는 ‘(3) 무너지는 신분제’ 조선후기 문화사를 다루고 있는 ‘(5)서민문화의 발달과 민중 의식의 성장’에서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마’의 경우 중단원 ‘1. 조선후기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을 총 3개의 소단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조선후기 경제사와 사회사를 다루고 있는 ‘(2)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흔들리다’, 조선후기 사상사와 문화사를 다루고 있는 ‘(3)실학과 서민문화가 발달하다’에서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바’의 경우 중단원 ‘1. 근대 사회를 향한 움직임’을 총 4개의 소단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조선후기 경제사를 다루고 있는 ‘(2)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조선후기 사회사를 다루고 있는 ‘(3)신분질서의 해체’, 조선후기 사상

사와 문화사를 다루고 있는 ‘(4)실학의 발달과 민중 의식의 성장’에서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조선후기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단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각 분야사 부분에 일부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본문분석

6종 『한국사』 교과서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본문분석은 농업의 발달, 수공업의 발달, 광업의 발달, 상업의 발달, 화폐의 유통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본문분석에 앞서 생활사 서술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 생활사 교육자료를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로 나누어 교과서별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6종 『한국사』 교과서별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자료

	문헌자료	비문헌자료
가	『진주지산농요』, 『정조실록』, 이증환 『택리지』, 『대전통편』, 우정규 『경제야언』	김홍도 「논갈이」, 「추수」, 「대장간」, 권용정의 「보부상」
나		장군, 김홍도 「대장간」, 「행상」, 「길 떠나는 상단」
다	정약용 『경세유표』, 박지원 『허생전』	김홍도 「대장간」, 권용정의 「보부상」
라	서유구 『임원경제지』, 『석천유집』, 『각전기사』, 『숙종실록』	권용정의 「보부상」

마		김홍도 「추수」, 「대장간」, 권용정의 「보부상」
바	『홍부전』, 『비변사등록』	김홍도 「대장간」, 권용정의 「보부상」

교과서의 단편적인 생활사 서술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다양한 생활사 교육자료의 활용을 들 수 있다. 각 『한국사』 교과서의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 자료를 싣고 있는 교과서는 ‘가’로 5개의 문헌자료와 4개의 비문헌자료를 다루고 있다. 반면 ‘나’와 ‘마’는 문헌자료는 싣고 있지 않고 3개의 비문헌자료만을 싣고 있어 비교적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자료가 적었다.

문헌자료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 등과 같은 관찬사료 이외에 사찬사료인 이중환의 『택리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과 함께 『허생전』, 『홍부전』과 같은 소설도 있어서 비교적 다양하다. 비문헌자료 중 그림 자료로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업의 발달과 관련하여서는 ‘나’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권용정의 「보부상」을 다루고 있다. 특히 ‘나’는 유일하게 ‘장군’이라는 농기구 실물자료를 싣고 있는데 그림 자료뿐만 아니라 실물자료의 활용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1) 농업의 발달

조선시대에 농업과 관련된 일은 정부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조선후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나는 조선후기 농업의 발달은 모내기법²⁴⁾의 확대에 의한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농업 경영 방

24) 6종의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앙법’과 ‘모내기법’이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식의 변화, 농민층의 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교과서에서 농업의 발달과 관련된 생활사의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는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를 찾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모내기법과 관련된 자료가 많이 등장 하였다. 먼저 각 교과서 별로 모내기법과 관련된 서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6종 『한국사』 교과서별 모내기법 관련 서술

가	농민들은 가뭄을 우려한 정부의 금지령에도 모내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모내기는 김매기 하는 노동력을 크게 줄여 주었고 수확량은 배로 늘려 주었다. 게다가 이모작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농법이였다.
나	모내기를 하면 논에 볍씨를 직접 뿌릴 때 하지 못하였던 벼·보리의 이모작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김매는 횡수를 2분의 1이상 줄일 수 있었다. 수확량도 늘어났고 적어도 보리만큼 더 거둘 수 있었다. ... 이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모를 심는 농민들을 볼 수 있었다.
다	농민들은 모내기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2모작을 했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시켰다. 또한 모내기법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을 덜게 되자 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사짓는 광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모내기법이 확산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어 한 사람이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광작이 나타났다.
마	모내기(이앙법)의 보급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늘고 일손이 줄어들자 일부 농민들은 경작지 규모를 확대하였으며(광작), 일부 지역에서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이루어졌다.
바	농민을 중심으로 농법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모내기법과 견종법이 대표적이다. 농법 개량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었고,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는 '모내기법'을 택하여 사용하겠다.

교과서 별로 비교해 본 결과 모내기법에 대한 서술은 대체로 모내기법의 확대에 의해 나타난 변화로 노동력의 절감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들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이 시기 농민들은 한 해 벼농사를 어떤 과정으로 꾸려 나갔으며 그 과정 속에서 모내기는 어느 시점에 시행되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학생들이 이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농민들의 벼 재배 과정은 이른 봄철 논을 갈고 고르는 작업, 봄철의 씨앗 뿌리기와 씨앗 덮기, 여름철의 김매기와 비료 주기, 가을철의 벼 베기, 늦가을 초겨울의 논갈이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벼 재배 방법에는 물을 채운 논에 미리 발아시킨 볍씨를 파종시키는 직파법, 못자리에서 모를 일정 정도 키운 다음 전체 논으로 옮겨 심는 모내기법이 있었다. 모내기법으로 벼를 재배할 경우 농부들은 이른 봄철 쟁기를 사용하여 한두 차례 논을 갈아두었다가, 그 가운데 대략1할 정도의 면적에 4월 하순경에서 5월 초순에 못자리를 설치하였다. 모가 모판에 자라는 동안 떡갈나무 잎, 연한 버드나무 가지 등을 사용하여 만든 거름을 모낼 곳에 뿌려준다. 볍씨를 뿌리고 약 한 달이 지난 6월 초순경부터 모내기를 하는데, 한 그루는 어린 모 4, 5포기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루와 그루 사이의 간격을 적당히 남겨 두었다. 김매기는 모낸 후 약 20일이 지나서부터 시작하며 추수 때까지 모두 두세 차례 실시하였다.²⁵⁾

모내기법과 함께 제시된 문헌자료는 『진주 지산 농요』, 『석천유집』, 서유구 『임원경제지』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문헌자료1> 『진주 지산 농요』

25)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6, 131쪽~p132쪽

어라디야 저라디야 상사로세
 이 농사 어서 지어 / 나라님 봉양을 하고 보세
 앞산은 점점 멀어지고 / 뒷산은 점점 가까온다
 이 배미 저 배미 다 심었으니 / 장구 배미로 넘어가세
 다 되었네 다 되었어 / 상사 소리가 다 되었네²⁶⁾

‘가’에서 제시된 『진주지산농요』는 모내기할 때 불렀던 노동요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나타나 있지 않은 채 “북소리 장단에 맞춰 흥겨운 상사 소리를 부르며 모내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이 눈 저 눈에 모를 다 심고 장구처럼 생긴 논배미만 남았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는 ‘배미’는 논두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논을 뜻한다. 모내기법은 김매는 노동력을 줄여 주었지만 대신 모내기 할 때에는 짧은 기간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모내기법이 일반화 되면서 두레라는 공동노동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두레가 활성화됨에 따라 모내기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⁷⁾.

<문헌자료2> 『석천유집』

이양(移秧)의 이점은 봄보리를 갈아 먹고 물을 몰아 모내기를 하여 벼를 수확하니 1년에 두 번 농사지음이 그것이다.²⁸⁾

<문헌자료3> 서유구 『임원경제지』

이양(移秧)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다. 김매기 노력을 더는

26) 한철호 외, 앞의 책, 87쪽

27)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35쪽

28) 도면희 외, 앞의 책, 95쪽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모 하나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
며, 좋지 않은 것은 쉼아 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
는 것이 셋째다.²⁹⁾

『석천유집』,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는 모내기법의 장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모내기법의 확대로 김매는 횡수를 줄여 노동력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
으며 또한 벼 재배가 끝난 가을부터 이듬해 모내기가 시작되는 초여름까지
논을 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밭에 보리를 심어 수확할 수 있게 되었
다. 즉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러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은
18세기 중 후반이 되면 금강 이남지역까지 널리 보급되었다.³⁰⁾

농업의 발달과 관련된 비문헌자료로는 그림자료인 김홍도의 풍속화 「논갈
이」와 「추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실물자료인 시비법과 관련된
생활유물 ‘장군’이 제시되어 있다.



<비문헌자료1>
김홍도 「논갈이」



<비문헌자료2>
김홍도 「추수」



<비문헌자료3>
장군

29) 도면회 외, 앞의 책, 95쪽

30)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34쪽

‘가’에서는 김홍도의 「논밭이」를 통해 당시 농민들은 어떠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지 학생들이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쟁기, 쇠스랑이 이외의 농기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을뿐더러 자료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 ‘마’에서 실고 있는 김홍도의 「추수」는 타작하는 농민들의 수확의 기쁨과 수탈의 슬픔을 한 폭에 담고 있다. ‘가’에서는 「추수」의 일부만 실고 있으며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반면 ‘마’에서는 김홍도의 「추수」와 함께 “마당에서 벼를 터는 일꾼은 상민 신분의 소작인으로 보이며, 뒤쪽에 자리를 깔고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은 양반 신분의 지주 또는 그 대리인인 마름으로 보인다.”라고 등장인물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역시 여기에서도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 ‘개상’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림 중앙에 위치한 나무등치가 바로 ‘개상’인데 이것은 곡식의 낱알을 떨어 내는 일종의 탈곡 기구다.³¹⁾

김홍도의 「추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확의 기쁨으로 밝은 표정의 사람들과 함께 수심이 가득한 사람도 등장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을 해석해 보도록 한다면 조선 후기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추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생활사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에서 시비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장군’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흥미를 자극 할 수 있으며 당시 농업에 사용된 생활 유물이기 때문에 신선해 보인다. 게다가 “측간에서 모은 똥과 오줌을 장군

31) 강명관, 『조선풍속사1, 조선 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푸른역사, 2010, 49쪽~51쪽

에 담아 논밭에 뿌려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다”라는 설명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문헌자료4> 『정조실록』

부유한 백성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한꺼번에 많은 농사를 짓습니다. 이 백성들은 적게는 3,4석씩, 많게는 6,7석씩 모를 한꺼번에 붓고 모내기를 하여 노동력을 절약하고 수고를 줄입니다.³²⁾

또한 ‘가’에 제시된 문헌자료 『정조실록』을 통해 모내기법의 일반화로 광작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광작농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장농은 토지소유뿐 아니라 농업경영에 관심을 기울이던 경영형지주로 상업적 농업에 목적을 둔 농민층이다. 광작농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광작에 필요한 대토지 확보와 노동고용이었다. 고용노동층은 토지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몰락농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은 노동력 시장을 통해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시켜 갔다.³³⁾ 광작에서 노동고용이 되지 못한 몰락농민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바’에 제시된 고전소설 『홍부전』이다. 학생들은 품팔이를 통해 생계를 꾸려 나가는 홍부의 모습을 통해 당시 농민층의 분해를 짐작할 수 있다. 농민층의 분해로 다수의 농민들이 생산수단인 토지에서 유리되어 갔고, 그들은 결국 다른 생산부문에서의 노동예비군으로서 역할이 부여되었다. 자신의 노동력밖에 생활수단이 없는 몰락농민들은 우선 농촌에서 고용기회를 찾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자 고향을 떠나 도시나 광산·포구 등으로 향해 임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했다.³⁴⁾

32) 한철호 외, 앞의 책, 89쪽

33) 최윤오, 「광작과 지주제」, 『한국사』 33- 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5, 72쪽~74쪽

<문헌자료5> 『홍부전』

짚어지게 가난하여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던 홍부의 마누라가 탄식하며 말했다. “짐승은 미물이나 입으로 밥을 물어 자식에게 먹여 주며, 추우면 날개를 벌려 자식을 덮는 것을, 나는 어찌 사람으로 이리 많은 자식을 굶기고 벗기는고? 각결의 아내같이 밭이나 매어 볼까? 양홍의 아내같이 물이나 길어 볼까? 직녀성에 사정하여 바느질품을 팔아 볼까? 탁문군의 본을 받아 술장사나 하여 볼까?” 홍부 마누라를 애써 말린다. 그리고는 대신 자신이 나가 품을 팔았다. 그가 어떤 품을 팔았을까? “매우 부지런히 서둘러 윗들과 아랫들 김매기, 먼 산 가까운 산 시초매기, 닷 돈 받고 불기 맞기, 새로 난 석어(조기)밤짐 지어 나르기, 대구령에 약 보따리 전하기, 초상난 집 부고 전하기, 상 나갈 때 명정 들기, 관청이 비면 일직서기, 대장간에 풀무질하기, 부잣집 어린 신랑 장가들 때 기러기 들기, 들병장수 술짐 지기, …”³⁵⁾

홍부가 품을 판 내용을 살펴보면 김매기, 시초매기, 불기맞기, 짐 나르기, 일직서기, 풀무질하기 등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 몰락농민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생활사 교육 자료로 유용해 보인다. 또한 『홍부전』과 함께 “품을 파는 임금 노동자가 나타나는 것은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라는 새로운 생산관계의 등장을 의미한다. 위에 제시한 『홍부전』에서 노동을 파는 품팔이가 다양하게 펼쳐진 것을 통해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서술을 함

34) 최완기, 「임노동의 발생」, 『한국사』 33- 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5, 135쪽

35) 최준채 외, 앞의 책, 100쪽

게 제시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8세기를 전후한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토지소유구조의 모순, 상품화폐경제의 농촌침투 등으로 인해 극소수 농민들이 경영형 부농으로 성장하고, 대지주의 토지집적이 심화되는 한편 대다수의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개된 농민층의 분해는 궁극적으로 다수의 농민을 토지에서 유리시켜 임노동 자원을 생성시켰다.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은 부상대고(富商大賈)들에게 상업 자본을 집적시켰고 그들은 자본을 투하하여 상업·수공업·광업 등에서 새로운 생산관계를 조성하였다. 생산수단을 확보한 자본가의 등장과 자기의 노동력 밖에 생계수단이 없는 노동자의 발생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에서 필수적 전제조건이었다.³⁶⁾

조선후기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맹아는 농민의 신분으로부터의 자유, 토지로부터의 자유라는 이중적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한 과정이 곧 농민층의 분해과정이며 동시에 농촌의 임노동자로 변신하는 과정인 것이다. 농민층의 분해와 몰락한 농민의 존재야말로 자본주의 맹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³⁷⁾

한편 조선후기 농민들은 인삼, 담배, 면화와 같은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제시된 문헌자료로 정약용의 『경세유표』, 이증환의 『택리지』가 제시되어 있다.

<문헌자료6> 정약용 『경세유표』

서도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사등전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³⁸⁾

36) 최완기, 앞의 논문, 158쪽

37) 최윤오, 앞의 논문, 110쪽

<문헌자료7> 이중환 『택리지』

진안의 담배밭, 전주의 생강밭, 임천과 한산의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골밭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곳 들은 부유한 이들이 이익을 얻는 원천이다.³⁹⁾

특히 두 자료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강력한 기호품이었던 담배는 조선 후기 네덜란드인 하멜이 조선에서의 억류생활상을 기록한 책 하멜표류기에 의하면 “현재 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성행하여 어린 아이들이 4, 5세 때 이미 배우기 시작하며,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고 할 정도로 남녀노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담배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⁴⁰⁾. 담배는 다른 작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랄 만한 속도로 확산되었다. 담배가 급속도로 널리 퍼진 것은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중독성이 생기고,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많아 두 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담배 농사가 이득이 많았던 것은 초기에 담배 한 근을 은 한 냥과 맞바꿀 정도로 담배가 고가품이었기 때문이었다.⁴¹⁾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생활사 부분은 누락되어 있어 교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과서에서 신고 있는 조선후기 여러 풍속화에서 담배 피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8) 정재정 외, 앞의 책, 79쪽

39) 한철호 외, 앞의 책, 89쪽

40)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261쪽~262쪽

41)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1』, 청년사, 2001, 222쪽~223쪽

2) 수공업의 발달



<비문헌자료4>
김홍도 「대장간」

수공업의 발달과 관련하여 ‘라’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비문헌자료로 김홍도의 풍속화 「대장간」을 싣고 있는데 대부분 설명을 넣지 않은 채 단순히 자료만 제시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은 ‘바’와 ‘마’ 뿐이다. 게다가 ‘바’의 경우 “대장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불에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큰 망치로 내려치면서 모양을 잡고 있는 대장장이의 움직임이 잘 묘사되었다.”⁴²⁾라고 단편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마’에서는 “화덕 옆에서 풀무질하며 결눈질 하는 소년, 담금질하며 날을 베틀는 노련한 대장장이와 신명나게 메질을 하는 젊은 대장장이, 그 앞에서 낫을 가는 견습공 소년의 모습이 보인다.”⁴³⁾라고 서술하여 조선후기 대장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다만 네 명의 대장장이가 모두 두건을 쓰고 있는데 이 두건은 대체로 서민들의 노동모로 사용⁴⁴⁾되었다는 내용이 첨가 된다면 더 좋을 듯

42) 최준채 외, 앞의 책, 107쪽

43) 주진오 외, 앞의 책, 67쪽

44)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3』, 역사비평사, 2001, 25쪽

싶다. 대장간에서 만들었던 물건들은 대개 농업사회에서 쓰던 호미, 낫, 팽이 등의 농기구였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교사는 수업을 재구성할 때 농업생산량의 증대와 관련하여 농기구의 발달을 설명할 때 대장간을 함께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수공업의 발달과 관련된 자료로는 비문헌자료인 김홍도의 「대장간」만 제시되어 있고, 수공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 문헌자료는 어느 교과서에서도 실고 있지 않다. 조선후기 이규경이 집필한 백과사전 형식의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역사·천문·지리·종교·문학·음악·의학·농업·광업·화폐 등의 내용을 변증설이라는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철 제련 및 단련 작업과 그 장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실려 있다.

조선시대의 수공업자는 관청에 이름이 등록되어 의무적으로 일정한 일수를 국가를 위해 노동을 해야 했고,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세금을 바쳤다. 예컨대 대장장이는 서울에서 공조, 상의원, 군기시, 교서관, 선공감, 내수사, 귀후서 등에, 지방에서는 관찰사영, 병마절도사영, 수군절도사영, 그리고 기타 지방 관청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는 무보수를 일을 해야 했다⁴⁵⁾.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전통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인들을 공조에 등록하던 규정들이 점점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 즉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통해 상품화폐경제가 더욱 발달하게 되면서 더 이상 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독립 수공업자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문헌자료8> 「대전통편」

45) 강명관, 『조선풍속사1, 조선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푸른역사, 2010, 123쪽

사섬시, 전함사 등 여러 관청들이 지금은 없어졌고, 내자시·내섬시·사도시 등 관청은 소속 장인이 없어졌다. …… 장인들을 공조에 등록하던 규정들은 점점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⁴⁶⁾

3) 광업의 발달

18세기에 이르러 수공업의 발달로 그 원료인 광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광업이 활성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은의 수요가 증가하여 은광 개발이 촉진되었으며, 금광의 개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금은 종래 귀금속으로만 이용되었으나 점차 화폐적 기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⁴⁷⁾ 상품화폐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그 수요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교과서 본문에서는 광업의 발달과 관련된 생활사 관련 서술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며 “덕대가 물주에게 자본을 받아 채굴 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만 ‘가’의 경우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광산으로 많이 몰려들어 문제가 되었다.”고 짧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어떤 과정으로 은과 금을 생산해 내었는지, 과연 농업 보다 광업의 이득이 높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고 있다.

광업과 관련된 문헌자료로는 우정규의 『경제야언』과 『비변사등록』이 제시되어 있다.

<문헌자료9> 우정규 『경제야언』

조정에서 은이 나는 곳에 은점 설치를 허가해 주면 돈 많은

46) 한철호 외, 앞의 책, 89쪽

47) 유승주, 「광업의 발달」, 『한국사』 33 - 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207쪽

장사꾼은 각자 재물을 내어 일꾼을 모집할 것입니다. 땅이 없어 농사짓지 못하는 백성들이 점민이 되어 그곳에 모여 살며 은을 캐서 호조와 각 영, 고을에 세를 바치고 남는 대로 물주에게 돌려 줄 것이니 공사 간에 유익한 일입니다.⁴⁸⁾

‘가’에 실린 우정규의 『경제야언』은 은점 설치의 허가는 토지를 잃고 생활의 터전에서 밀려난 농민들이 임노동자로 고용되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내용으로 광산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호조에서 광산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별장(別將)에 임명되어 광산을 열고 세금을 거두는데, 실제 현장에서 채굴을 담당하는 자들은 점장(店匠)이라고 불리는 광산 기술자들이었다. 연군(鉛軍)·은군(銀軍)이라고 불리던 노동자들은 토지에서 밀려나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임금노동자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임금을 받고 일하였다. 18세기 전반에는 매장량에 따라 한곳에 수백, 수천의 광산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⁴⁹⁾ ‘바’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변사등록』을 살펴보면 당시 광산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문헌자료10> 『비변사등록』, 정조 23년, 1799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안에는 본래 금광이 다섯 곳이 있었다. …… 금년 여름 새로이 39개소의 금혈을 뚫는데, 550여 명의 광꾼들이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금점 앞에는 700여 채의 초막이 세워졌고, 광꾼과 그 가족, 좌고, 행상, 객주 등 인구도 1,500여 명에 이른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모여들이 그곳에

48) 한철호 외, 앞의 책, 89쪽

49)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81쪽

서는 생필품 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⁵⁰⁾

18세기 말, 19세기 전반기에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 민영 광업이 발전하면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광산노동자, 가족 노동력을 이끌고 금광 채굴에 나서는 사람들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산에 몰려들게 되었다. 이에 정조는 광산에서 일하는 자들은 농사짓기 싫어하고 놀고먹으려는 자들이며 그곳이 범죄의 소굴이 되고 있으므로 엄히 다스려 농촌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정책을 폈다. 정조가 몇 차례에 걸쳐 금광에 대한 가혹한 금압 조치를 취했지만 궁극적인 성공은 거둘 수가 없었다. 농민들로서는 높은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기들의 노력과 기술에 의해 성과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금광 채굴은 매우 매력적이었던 것이다.⁵¹⁾

4) 상업의 발달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은 공인과 사상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보부상과 관련하여서는 비문헌자료로 권용정의 「보부상」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5종 교과서에서 모두 실고 있다. ‘나’는 조선후기의 상인들의 모습을 김홍도의 풍속화 일부에서 발췌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후에 살펴보겠다.

다음 표는 6종 교과서에 나타난 보부상에 대한 서술이다.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다’에서는 보부상은 장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상인이라고

50) 최준채 외, 앞의 책, 101쪽

51)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79쪽

단편적인 서술로 만족하지 않고 보부상이라는 용어를 해석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표4> 6종 『한국사』 교과서별 보부상 관련 서술

가	본문에는 “보부상들은 장날이 순환하는 것에 따라 장사를 하면서 각 장시들을 연계하여 하나의 유통망을 형성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고, 자료는 단순하게 제시만 되어 있다.
나	보부상에 대한 설명이 따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며, “이들(자유 상인)은 서울과 지방 장시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시전 상인과 공인, 보부상에 맞서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라고만 서술되어 있다. 다만 탐구활동에서 “보상과 부상을 합친 말, 대개 장시를 거점으로 활동”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다	본문에는 “보부상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면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역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자료와 함께 “붓짐장수인 보상과 등짐장수인 부상을 합친 용어이다. 보상은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비교적 비싼 상품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붓짐장수를, 부상은 무게나 부피가 크고 값이 비교적 싼 상품을 지게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등짐장수를 말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라	본문에는 따로 보부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자료와 함께 “보부상은 등짐장수와 붓짐장수를 합하여 이르는 말로, 보부상의 활동으로 전국의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마	본문에서는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것은 보부상이었으며”라고 서술되어 있고, 자료와 함께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장시가 열렸는데 보부상은 장시와 장시를 순회하며 상업에 종사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바	본문에는 “전국에 개설된 1,000여 개소의 장시에서 보부상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자료와 함께 보부상 중 등짐장수인 부상의 모습이다. 보부상은 대개 장시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보부상이 주로 어떤 물품을 팔았으며 어떻게 생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단순히 “보부상은 장시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는 설명에만 치중해 있으며 함께 제시된 권용정의 「보부상」에 대한 자료해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부상의 지게 위의 물건을 보면 맨 위의 것은 자배기, 그 아래 것은 버치, 그 아래 것은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장독 뚜껑으로 보인다. 자배기는 서민들의 부엌용구로 채소를 씻고 절일 때, 또는 나물을 삶아 물에 불리거나 떡쌀을 담글 때 쓰였으며, 설거지통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버치는 자배기 보다 조금 깊고 큰 그릇이다. 이처럼 부상은 나무그릇 토기 용기 등과 같은 비교적 조잡한 일용품을 상품으로 하여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판매하였으므로 '등짐장수'라고도 했다. 보상은 비교적 값비싼 필묵, 금 은 동제품 등과 같은 정밀한 세공품을 보자기에 싸들고 다니거나 질빵에 걸머지고 다니면서 판매하였으므로 '붓짐장수'라고도 했다.⁵²⁾



<비문헌자료5>
권용정 「보부상」



<비문헌자료6>
김홍도 「행상」



<비문헌자료7>
김홍도 「길 떠나는 상단」

유일하게 권용정의 「보부상」을 신고 있지 않은 ‘나’는 그림에 대한 설명 없이 김홍도의 「행상」과 「길 떠나는 상단」 일부를 신고 있다. 김홍도의 「행상」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떠들이 행상으로 한 가족처럼 보인다. 행상은 지주

52) 강명관, 앞의 책, 312쪽~313쪽

층의 토지 결빙 때문에 토지에서 밀려나 생활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의 합류로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행상들은 가가호호를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점차 장시의 순회에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⁵³⁾

김홍도 「길 떠나는 상단」에 나타난 상단은 어딘가로 짐을 싣기 위해 가고 있으며, 아직 짐을 싣기 전이기에 길마를 엮은 빈 말을 임시로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길마란 소나 말에 엮어 짐을 싣거나 달구지를 채울 수 있게 만들어진 것⁵⁴⁾으로 오른쪽 말을 제외한 모든 말과 소에 엮어있다. 오른쪽 말에 올라 탄 사람은 상단의 행수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비문헌자료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은 장시(場市)와 포구(浦口)를 거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교과서 본문에서는 “장시가 활성화 되었다”라고만 서술되어 있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장시는 어떤 의미였는지, 이 장시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일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서술이 누락되어 있다.

16세기 이래 장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며, 18세기 중엽에는 1,000여 곳에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장시의 기본 기능은 주변의 농민들이 잉여물자를 처분하여 부족분을 구입하는 교역의 터전이었다. 즉 장시의 성장에 따른 농가 잉여 처분 기회의 확대는 농가의 상품생산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을 향상시키는 면이 있었다. 또한 촌락이라는 좁은 테두리보다 넓은 세상을 접촉하게 되는 공간이 바로 장시였다. 멀리서 온 행상들로부터 외지 정보가 유입되고 이들을 통해 이 지방의 소식이 외지로 전달되었다. 또한 장시는 관의 경제 운용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지방관은 장시를 통하여 농가경영과 지

53)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57쪽~158쪽

54) 강명관, 앞의 책, 327쪽

역경제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했다. 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곡물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관의 곡물을 시장에 방출하기도 했고, 부자가 곡물을 숨겨두는 것을 막아 그것을 장시에 방출토록 유도했고, 지방관이 직접 그것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방출하기도 했던 것이다. 55)

장시의 확대와 더불어 화폐유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화폐의 유통에 대한 서술은 ‘나’와 ‘바’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와 더불어 상평통보가 교환 수단으로 널리 유통되었다”고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비문헌자료로 ‘상평통보’를 신고 있다. 대부분 ‘상평통보’의 사진만 단순히 신고 있으며, 다만 ‘지학사’에서는 “1678(숙종 4년) 정부는 동전 유통을 결정하였다”라고 설명을 달았다. 상평통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어 구체적인 생활사를 구현해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라’에서는 문헌자료로 『숙종실록』을 실어 상평통보의 가치를 짐작해볼 수 있게 하였다.

<문헌자료11> 『숙종실록』

숙종 4월 1월 을미,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고 비로소 돈을 사용하는 일을 정하였다. 돈은 천하에 통행하는 재화인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누차 행하려고 하였으나 행할 수 없었다. 동전이 토산이 아닌데다 풍속이 중국과 달라서 막히고 방해되어 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신 허적과 권대운 등이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군신에게 물으니, 군신들이 모두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 왕이 그대로 해당

55)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1』, 역사비평사, 1996, 470쪽~471쪽

관청에 명하여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돈 4백 문을 은 1냥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다.⁵⁶⁾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돈 4백문을 은 1냥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상평통보의 가치를 살펴보면 상평통보 1개는 1
푼(分)으로 10푼이 1전(錢), 10전이 1냥(兩), 10냥이 1관(貫)이 된다. 쌀 1섬
은 쌀 2가마니에 줌 못 미치는 것으로 18세기 서울의 쌀값의 평균적인 시세
는 1섬에 5냥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대략 상평
통보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동전 주조가 늘면서 그 유통범
위가 경기·충청지방으로부터 점차 확산되어 18세기 초에는 전국에 미칠 정
도였다. “야채를 파는 노파나 소금을 파는 인부까지도 곡물보다는 화폐를
요구”할 정도로 화폐경제가 진전되었다.⁵⁷⁾

상품화폐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문헌자료로는 『비변사등록』과 『각전기사』, 박지원 『허생전』이 제
시되어 있다. 매점매석으로 상품유통권을 장악한 도고의 등장으로 나타난
폐해에 대해 나타난 자료이다.

<문헌자료12> 『비변사등록』, 정조 10년, 1786

요즈음 모리배들이 각각 물화를 차지하여 서로 도고(독점상인)
가 되었다. 이에 따라 물가가 점차 올라 서울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시장 상인들은 생업을 잃을 뿐 아니라, 부자는 더
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이 고질화되어
그 폐를 이루 말하기 어렵다. …… 서울 안팎의 부유한 자들이

56) 도면회 외, 앞의 책, 95쪽

57)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24쪽

곡식을 쌓아 두고 마음대로 가격을 조종하니, 백성들은 풍년에도 굶주림을 면할 수 없다.⁵⁸⁾

<문헌자료13> 『각전기사』

광주 삼전도에 사는 손도강은 서울에 사는 부호로 경강 근처에 살면서 서울에 나타나 양주와 광주의 부민과 체결하여 수천만 금을 마련하여, 한편으로는 원산에 들여보내 생산지에서 모든 배들을 도고하여 쌓아두면서 조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주, 포천 등 중간에서 기다리다가 북어상들에게 사 모아서 마음대로 팔고 있다.⁵⁹⁾

박지원의 『허생전』의 경우 ‘가’와 ‘다’ 둘 다 다루고 있으나 여기서는 내용이 더 함축적인 ‘다’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헌자료14> 박지원 『허생전』

허생은 곧장 안성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대추, 밤, 감, 배, 감자, 석류, 유자 등의 과일류를 몽땅 시세보다 두 배로 사들여 저장해 두었다. 허생이 과일을 독점해 버리자 나라 안에서는 잔치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다. 얼마 후 허생은 저장했던 과일을 풀었다. 허생에게 두 배를 받고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은 이번에는 열 배를 주고서 살 도리밖에 없었다. 허생이 탄식하기를 “겨우 만 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기울였으니, 이 나라 경제 기반의 얕고 깊음을 알겠구나!” 그리고 과일을 판 돈으로 칼,

58) 최준채 외, 앞의 책, 101쪽

59) 도면희 외, 앞의 책, 95쪽

호미, 무명, 명주, 솜 등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건너갔다. 그것을 팔아 말총이란 말총은 모두 사들이며 말하기를 "몇 해가 지나면 이 나라 사람들 상투도 매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며 그것을 저장해두었다. 그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었다.⁶⁰⁾

‘다’에서는 『허생전』의 일부와 함께 “‘허생전’은 18세기 상업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 허생은 당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독점 상인을 상정하여 만든 가공의 인물이다. 당시 사상 가운데 독점상인을 도고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큰 자본을 가지고 육로 뿐만 아니라 해로를 이용하여 독점적 상업 활동을 하였다.”라는 설명을 실고 있다.

60) 정재정 외, 앞의 책, 86쪽

IV. 생활사 교육 자료

효과적인 생활사 교육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역사가들이 이용해왔던 공식적인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성격의 문서, 즉 일기·서찰·여행 및 체험 기록 등이 담긴 개인 문집과 고문서, 그리고 고전 시와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⁶¹⁾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와 관련된 교육 자료는 매우 광범위하기에 여기서는 활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만을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문헌자료로는 일기류, 편지류, 고전소설을 비문헌자료는 실물자료와 그림 자료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문헌자료

1) 일기류

일기는 하루 동안 겪은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감상 등을 솔직하게 적은 기록이다. 일기에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자세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무미건조한 단편적인 역사 서술에 구체성과 생동감을 부여해 준다. 또한 일기는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을 규정하고 있는 거시적인 사회구조까지 포함되어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활사 교육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저자의 대부분이 지배층이지만 저자의 생활 주변에 살며 관련을 맺었던 일

61)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2008, 405쪽

반 민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기에⁶²⁾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하겠다.

생활사와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일기류 자료는 『미암일기』, 『목재일기』, 『쇄미록』, 『이재난고』, 『흙영』, 『노상추일기』 등을 들 수 있다.

『미암일기』는 1567년부터 1577년까지 10년간에 걸친 미암 유희춘의 일상이 담겨있는 일기 10책과 미암과 부인 덕봉의 시문을 모은 부록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록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으나 조선시대 개인일기 중 가장 방대하며, 『선조실록』 편찬에도 중요한 사료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암일기』는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에서 활자본으로 인간(印刊)된 것이 있고, 근래에 담양향토문화연구회에서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⁶³⁾ 생활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재일기』는 조선전기의 사대부였던 목재 이문건의 42세부터 74세까지의 생활을 기록한 것으로 시묘살이, 을사사화, 유배생활, 부부관계, 질병치료, 민속신앙, 제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는 손자를 출생부터 16세까지 손수 키우면서 손자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양육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양아록』을 저술하였다. 『목재일기』는 모두 10책이 전하는데, 이것은 협의적인 의미로는 현존 최고(最古)의 생활일기로서 조선전기 사대부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목재일기』가 산문 형식을 띠었다면 『양아록』은 주로 시 형식을 빌려 기록한 것이다.⁶⁴⁾

『쇄미록』은 임진왜란 때 오희문의 9년 3개월에 걸친 피란일기(避亂日記)로 서울을 떠나 전라도 방면으로 여행을 떠난 1591년 11월 27일부터 1592년 6월까지의 여행 모습을 기록한 『임진남행일기』와 1592년 7월부터 1601년 2월

62) 전국역사교사모임, 앞의 책, 406쪽

63)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9쪽

6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36쪽~38쪽

27일까지의 피난 생활 모습을 쓴 『일록』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일록』부분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피난생활 중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일기 사료로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쇄미록』은 임진왜란 중의 일기라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인정되어 1971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활자본으로 출판되었으며, 1990년에는 해주 오씨 추탄공파 종친회에서 이민수의 번역으로 국역본이 출판되어⁶⁵⁾ 생활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난고』는 이재가 10세부터 시작하여 63세 일기로 죽기 전까지 54년간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한 문학·산학·예학·도학·지리·역사·언어학·예술 등 정치·경제·사회·농·공·상 등의 여러 방면에 걸친 실사를 총망라하여 쓴 일기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일기 가운데 가장 긴 기간 쓰인 최대분량의 일기로 조선 후기 지식인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흙영』은 유만주가 21세부터 시작하여 34세에 요절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쓴 일기로 당시의 날씨, 쌀값, 집값, 제사상 차리기 등 18세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노상추일기』는 조선 후기의 무관 노상추가 68년 동안이나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쓴 일기로 노상추 자신과 가족들의 결혼, 출사, 관직업무와 농사 현황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또한 이 일기는 조선후기 무관들의 일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조선시대를 살았던 무관 양반들의 인생을 담은 역사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를 2006년 4권으로 간행하였고, 아직 번역본은 없으며 원본은 후손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여기서는 양반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 『쇄미록

65)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강, 1996, 149쪽~150쪽

』을 그 예로 살펴보겠다.

『쇄미록』에는 당시 양반들이 주로 어떻게 제사를 지냈으며 손님을 어떻게 접대했는지를 비롯하여 어떠한 오락을 하고 지냈으며 각 절기마다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결혼의 절차와 풍습은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⁶⁶⁾ 여기서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시 했던 봉제사(奉祭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의 하나가 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일이었다. 오희문의 일기는 바로 이러한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희문은 평강에 거주했던 1598년 1년간 스물여덟 번이나 되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월 평균 두 번 이상의 비율이다. 게다가 한 번의 제사를 치르는 데에도 제수(祭需) 등의 준비를 수일 전부터 시작해야만 하기 때문에 제사가 오희문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⁶⁷⁾

<문헌자료15> 오희문의 『쇄미록』

지난 달 즉 4월 29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다. 마침 내가 이 고을 즉 장수현에 와 있으니 주인인 현감 형이 제수를 성대하게 갖추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서울의 집안일을 생각하면 왜적이 가까이 닥쳐와서 장안이 온통 눈코 뜰 새 없을 터이니 어느 겨를에 제사를 지내겠는가. (장수에서 이렇게라도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66)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56쪽

67) 미야지마 히로시, 앞의 책, 153쪽

선조 25년(1592) 4월 13일에 동래로 침략한 왜적은 순식간에 동래와 부산을 함락시키고 한양을 향해 진격하였는데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조선군은 곳곳에서 패배하였다. 이러한 전황이 영남으로부터 하루에 몇 차례씩 장수현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장수현감으로 있던 그의 처남 이빈이 이러한 소식을 오희문에게 즉시 알려주어 그는 급박한 당시의 전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부친의 제사를 거르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림 그의 처남은 그에게 제물을 마련해 주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기록이다.⁶⁸⁾

한편 『쇄미록』에는 오희문의 노비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으로 노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담당했으며 그들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오희문이 전라도 방면으로 여행 나갔을 때에 남자종 두 명을 대동했던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양반이 여행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남자종을 데리고 갔다. 또한 오희문이 임천에 거주할 때 하루하루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 관아가 소유한 토지를 빌리게 되는데 이 토지에서 노비들이 경작하는 모습과 그것을 감독하는 오희문의 모습이 『쇄미록』에 나타나 있다.

<문헌자료16> 오희문의 『쇄미록』

송노, 분개, 복지 등에게 전날 제초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울무밭의 제초를 하게하고 좁쌀밭의 김매기도 하게 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소나기가 내려 좁쌀밭의 제초를 다하지 못했으니 안타깝다. 그런데 울무밭 독에 한복을 시켜 찰수수 한 되의 종자를

68) 전경목, 앞의 논문, 57쪽~58쪽

심게 하였는데 겨우 한 두둑을 심었을 뿐이고 그 싹도 덩성덩성 자랐다. 필시 한복이 그 종자를 훔쳐 자기 밭에 뿌렸을 것이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도대체 우리 집 전답은 모두 한복이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모두 드문드문 파종을 하였다. 생각건대 이 종자도 한복이 훔쳐 자기 밭에 뿌렸을 것이다. 정말 분통해서 참을 수 없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희문의 노비 한복이 종자 일부를 빼들려 자기 밭에 뿌린 것을 알 수 있다. 한복은 노비임에도 자신의 토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노비들은 인격적으로는 자유가 없었지만 자기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었고, 그것을 매매하거나 자손에게 상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⁶⁹⁾

2) 편지류

편지는 자신의 뜻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화하듯이 쓴 글로 이것 또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사 교육 자료로 가치가 있다. 여기서는 조병덕의 편지를 통해 살펴보겠다. 조병덕의 조상은 17~18세기에 걸쳐 화려한 지위를 누린 노론 출신이었지만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조병덕 삼대가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 양반’으로 전락했다.⁷⁰⁾ 따라서 더 이상 한성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충청도 남포현 심전면 삼계리로 이사하여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삼계리에 살면서 그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의 일부

69) 미야지마 히로시, 앞의 책, 165쪽

70) 하영희, 『양반의 사생활』, 푸른역사, 2008, 15쪽

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헌자료17> 조병덕의 편지

(1)우리 집은 낙남한 후로 문전 박전을 갈아 다음 해 양식을 마련했다. 땅 갈고 씨 뿌릴 때 와서 일하는 마을 사람이 많을 때는 거의 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들 우리 집 들밥이 마을에서 제일이라고 하여 ‘음식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맛이 있으며, 멀리 미치는 혜택이 가장 고맙다.’고 했다.

(2)이른바 농사짓는 것도 전과 같이 못하여, 세전(歲前)에는 근근이나마 연명은 했으나 이제는 이것도 어려워니, 30명 가까운 식구가 굶어 죽을까 걱정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유산 큰집은 명색이 수령의 집인데도 조석이 황급하니, 저 같은 사람이야 무엇으로 지탱하겠습니까?

(3)이번 과거응시 비용은 지금 동쪽에서 빌리고 서쪽에서 구걸하여 배를 채우는 형편으로 볼 때 어찌 돈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마침 백성오가 논 판 돈 수십량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기에, 마산 논 두마지기를 30냥에 팔아서 과거비용으로 한다.

(1)은 1811년 조병덕의 아버지 조최순 일가가 삼계리에 내려온 후 농사짓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꾼 백여 명이 동시에 일할 정도로 많은 농토를 소유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윗대에 마련한 터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에서는 장인 김재선에게 보낸 편지로 연말도 넘기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질 정도로 형편이 나빠졌음을 말하고 있다. 생계가 곤란하여 (3)에서는 아들 조창희의 과거응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논을 팔고

있다.

3)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조선시대의 사회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데 학생들에게 가장 친근한 자료다. 그러나 소설에는 흥미와 극적인 상황을 유발하는 과장된 요소와 허구가 많이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생활사 교육 자료로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 실제와 허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조선후기 서민들의 생활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 『홍부전』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문헌자료18> 홍부전

놀부네 갔던 홍부가 몽둥이로 실컷 맞고 돌아오니 그것을 본 홍부 마누라, 바깥으로 뛰어나가던 덜컹 주저앉으며 태산같이 쌓인 곡식 누구를 주자고 아껴서 이리 몹시 때렸을까.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장손으로 태어나서 선영(先塋)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사는데, 누구는 버둥대도 이리 살기 어려울까, 차라리 나가서 콧 죽고 싶소.

『홍부전』에 등장하는 홍부와 놀부 형제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탄생한 전형적인 인물로서, 놀부는 급속한 농촌의 경제 발전 속에 광범하게 토지를 확보한 부농의 모습을, 홍부는 소작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품팔이꾼으로 전락한 빈농의 모습을 대변한다. 또한 장자 상속제도가 정착된 조선 후기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⁷¹⁾

흥부와 놀부는 한 형제이면서도 성격이나 재산, 자식의 숫자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밑줄 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놀부는 장손으로서 선영의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호의호식하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조선후기에는 성리학의 이념이 강하게 정착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큰 전란을 겪게 되면서 혈연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남자 중심, 장자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문헌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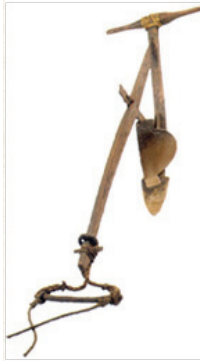
1) 실물자료

실물자료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자료로 그 자체로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물건인지를 추측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예로 농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쟁기는 논밭을 가는데 가장 널리 이용된 농기구로 소에 메워서 쓴다. 소 한 마리로 끄는 쟁기를 ‘호리’, 두 마리로 끄는 쟁기를 ‘겨리’라고 한다. 쟁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으로 곧게 뻗어 있는 긴 나무를 ‘성에’라 하며, 휘어져 아래로 뻗고 있는 나무를 ‘술’이라고 한다. 성에와 술을 연결하는 곧게 서 있는 나무를 ‘한마루’라고 하는데 여기에 1~2개의 구멍을 뚫어서 땅을 가는 깊이에 따라 술을 조정할

71) 신병주 외,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들베개, 2002, 250쪽

수 있도록 하였다. 술 바닥에 땅을 갈아엎도록 ‘보습’을 끼웠으며, 대체로 삼모양의 보습이 사용되었다. 보습 위에는 ‘벗’이라는 쇠판을 비스듬하게 덧대어 보습에서 갈린 흙덩어리를 받아 다른 쪽으로 떠넘어가도록 하였다.⁷²⁾



<실물자료1>
쟁기



<실물자료2>
쇠스랑



<실물자료3>
용두레

농작물 파종을 위한 연장으로 사용되는 쇠스랑은 쇠로 갈퀴모양을 만들고 ‘ㄱ’자로 구부러진 한 끝에 긴 나무 자루를 박아서 만들었다. 발은 보통 세개가 일반적이거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것도 있다.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발을 파고 흙덩이를 깨서 고르기도 하며 씨를 뿌린 뒤 덮는데, 감자·고구마를 캐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⁷³⁾

용두레는 물을 대는 연장으로 통나무를 배 모양으로 길쭉하게 파서 몸통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양쪽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 가는 나무를 끼우고 여기에 끈을 매어 사용했다. 한 곳에 고인물을 다른 곳으로 퍼 옮기는 데에 사용되며 두 곳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⁷⁴⁾

72) 박대순, 『농기구』, 대원사, 1990, 45쪽~47쪽

73) 박대순, 앞의 책, 52쪽

74) 박대순, 앞의 책, 67쪽

2) 그림자료

그림자료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료 속에 담긴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생활사 교육 자료이다. 하지만 그림자료를 이해하는데 학생들은 역사적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이 필수적이다. 생활사교육에 활용한 그림 자료에는 풍속화, 민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는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에 활용 가능한 그림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자료1>
「경직도」



<그림자료2>
「담배 썬는 가게」



<그림자료3>
「여름날의 짚신 삼기」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그림자료로는 작자미상의 「경직도」, 김홍도의 「담배 썬는 가게」, 김득신의 「여름날의 짚신 삼기」가 있다. 농업사와 관련하여 모를 눈에 옮겨 심는 모습을 그린 「경직도」는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데 적절한 자료다. 모내기법은 김매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었지만, 대신 모내기할 때에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손이 필요했다. 그래서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두레라는 공동 노동조직이 생겨났다. 두레가 활성화됨으로써 모내기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

다.⁷⁵⁾

상업사 분야의 그림자료로는 김홍도의 「담배 씨는 가게」를 들 수 있다. 담배 판매와 관련된 1746년(영조22)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 담배를 팔던 곳은 절초전(切草廬)이라는 난전이였다. 절초전은 논밭도 없고 공물도 취급하지 못하는 도하, 즉 서울의 빈민들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집 앞에 임시로 막을 친 뒤 담배를 팔던 곳이었다. 상품작물로서 담배의 매매가 활성화되자 어용상인들은 연초전을 설치하였고, 일반 상인들도 도고를 형성해 담배를 팔기 시작했다. 일반 상인들은 지방의 담배를 미리 구입하고 매매해 놓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연초전의 시장 상인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⁷⁶⁾

수공업사와 관련된 자료로는 김득신의 「여름날의 짚신 삼기」를 들 수 있다. 짚신은 조선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신발로 양반이라도 가난하거나 상층이거나 먼 길을 떠날 때는 짚신을 신었다.⁷⁷⁾ 따라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짚신을 삼을 줄 알았고, 짚신 삼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75)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책, 139쪽

7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3』, 역사비평사, 2006, 188쪽

77) 한국고문서학회, 앞의 책, 52쪽

V. 생활사 교육방안

생활사 중심의 역사교육은 기존 한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경제사·사회사·문화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문헌자료인 오회문의 『쇄미록』과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비문헌자료인 작자미상의 「경직도」, 김홍도의 「씨름」과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활용하여 작성된 학습지를 통해 단오날 조선후기 사람들의 생활상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특히 김홍도의 ‘씨름’은 이와 관련된 동영상자료 지식채널e의 『화인열전』⁷⁸⁾을 활용하여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문헌자료 이외에 시청각자료와 같은 비문헌자료에 의한 역사표현도 감정이입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시청각자료는 문헌자료에 비해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시청각자료는 하나의 자료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요소를 담을 수 있다. 따라서 시청각자료 등 비문헌자료의 형식에 의한 역사표현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인물에 대해 자기 나름의 감정이입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⁷⁹⁾ 최근 역사교과서에도 사진은 물론 그림이나 만화 등의 시각자료가 들어가고 있으며,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확대는 다양한 시각자료나 영상자료를 역사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⁸⁰⁾

78) 지식채널e, 『화인열전』, 2006년 4월 3일 방영

79) 서용희, 「비문헌자료를 통한 역사이해와 역사학습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18쪽

80) 김한중,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함께, 2007, 339쪽

역사교육에서 추체험 곧 감정이입적 이해 방식의 도입은 다양하고 흥미 있는 역사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역사적 사실을 행위자와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역사를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역사가 인간의 의지에 바탕을 둔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주체적 역사의식을 기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⁸¹⁾

본 수업에서는 비교적 생활사 자료와 그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며, 교과서 채택률이 높은 미래엔의 교과서를 중심교재로 사용하고자 한다. 단원은 대단원 ‘Ⅲ.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의 중단원 ‘2. 조선에서도 근대의 기운이 움트다’의 ‘2-4 피지배층, 생산력 증대에 노력하다’를 선택했다. 미래엔의 교과서 대단원 ‘Ⅲ.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은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5> 미래엔의 교과서 대단원의 내용구성

Ⅲ.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1. 서양에서 먼저 근대가 시작되다	(2-1) 영·정조, 탕평책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다
	(2-2) 국제적인 평화 분위기가 펼쳐지다
2. 조선에서도 근대의 기운이 움트다	(2-3) 민심 수습을 위한 수취 체제의 개편
	(2-4) 피지배층, 생산력 증대에 노력하다
3. 격동의 19세기, 조선의 당면 과제는?	(2-5)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다
	(2-6) 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
4. 흥선 대원군, 10년 권세를 쥐다	(2-7) 실학, 부국안민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다
	(2-8) 문화의 주체가 다양해지다

이연경에 따르면 생활사 학습에서는 역사 학습의 구별된 영역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각각 나누어 생각하기는 어렵다.⁸²⁾ 따라서 경제사를 중심으

81) 김한중, 앞의 책, 343쪽

로 사회사·문화사 분야의 생활사를 일부 통합한 수업을 구상해 보았다.

한 예로 학습지에 제시한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에 등장하는 갓을 쓴 인물은 양반으로 조선후기 양반들이 이처럼 상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이제 막 끝낸 단오 무렵 씨름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모내기법의 확대에 의해 광작이 가능해졌으며 부농이 등장하게 된다는 내용은 경제사분야의 생활사, 부를 축적한 농민들이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되면서 양반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신분제의 동요를 야기하게 된다는 내용은 사회사분야의 생활사, 조선후기 서민문화의 발달로 유행한 풍속화는 서민들의 풍속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내용에서 문화사분야의 생활사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풍속화의 해석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다른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의 역사이해를 돕고자 했다.

본 수업은 학습지를 통한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강의식 수업의 경우 교사가 효과적으로 교과지식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하면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지루해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렴적 질문 보다는 확산적 질문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본 수업에는 수렴적 질문과 확산적 질문을 혼합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이다.

또한 학습지에는 다양한 문헌자료 및 비문헌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적 사고력⁸³⁾을 자극하여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

82) 이연경, 「고등학교 국사 수업에서 생활사 학습 방안」, 『역사교육』 제41집, 역사교육학회, 2008, 97쪽

83) 김한중에 따르면 역사적 사고력은 크게 역사적 탐구기능과 역사적 상상력으로 나뉘며 역사적 탐구기능에는 일반적 기능과 역사적 기능이 포함된다. 일반적 기능으로는 문제의 인지, 자료의 수집, 자료의

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해석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시간도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료를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학습지의 주제는 ‘조선후기 단오날의 풍경’으로 정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 중의 하나지만 오늘날에는 설날이나 추석만큼이나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오늘날과는 달리 성대하게 치러졌던 조선 후기 단오날의 모습은 어떠하였으며 그 당시 사람들은 단오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생활사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주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단오는 ‘술의날’, ‘수릿날’이라고도 했는데 ‘술의’, ‘수리’는 농사지을 때 사용된 ‘수레’를 뜻하는 것으로 농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오 무렵은 모내기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내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모내기법의 확대에 의해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교육하기에 더 없이 적합한 주제라고 판단하였기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학습지는 ‘단오’라는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생활사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는데 문헌자료인 오희문의 『쇄미록』과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비문헌자료인 작자미상의 「경직도」, 김홍도의 「씨름」과 신윤복의 「단오풍경」과 관련하여 ①~⑧까지 번호를 붙여 괄호 안에 내용을 채우거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①에서는 모내기 하는 모습을 그린 작자미상의 「경직도」와 모내기 무렵의

처리, 결론의 도출, 일반화, 전달능력을 들 수 있으며, 역사적 기능으로는 역사적 개념의 사용, 역사적 자료의 활용, 역사적 연구 방법의 수행이 포함된다. 역사적 상상력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삽입, 감정이입적 이해, 역사적 판단이 있다. (김한중, 앞의 책, 3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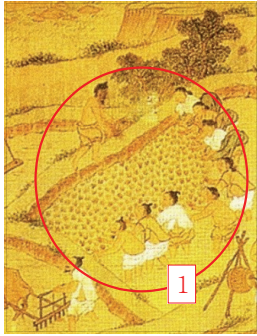
단오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5월령을 함께 제시하고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넣었다. 『농가월령가』 5월령에는 ‘보리추수’, ‘보리타작’ 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모내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벼·보리의 이모작이 실시되고 있음을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모 심기’와 더불어 단오날 창포로 머리를 감는 내용도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단오 무렵의 시기의 생활 모습을 학생들이 확인 할 수 있다.

②, ④, ⑤, ⑧에서는 단오날 씨름이 한창인 모습이 담겨 있는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과 관련된 질문을 넣었다. 특히 이 부분은 동영상자료 지식채널e의 『화인열전』을 활용하였다. 여기에서는 김홍도의 「씨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표정에서부터 복식과 신분 등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오날에 씨름을 하는 것, 부채를 선물하는 풍속에 관한 내용, 김홍도가 풍속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의도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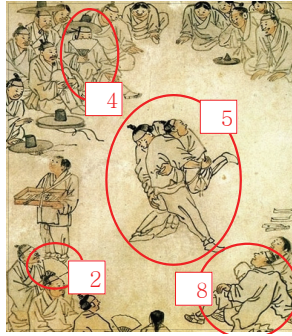
③, ⑥, ⑦에서는 단오날 부녀자들이 즐긴 그네뛰기와 창포물로 머리감는 모습이 담겨 있는 신윤복의 풍속화 「단오풍정」과 관련된 질문을 넣었다. 특히 ③의 경우 「단오풍정」에 등장하는 노비를 통해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유추해보도록 하였는데 제시한 그림 자료인 「단오풍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오희문의 『쇄미록』 일부를 함께 제시하였다.

조선후기 단오날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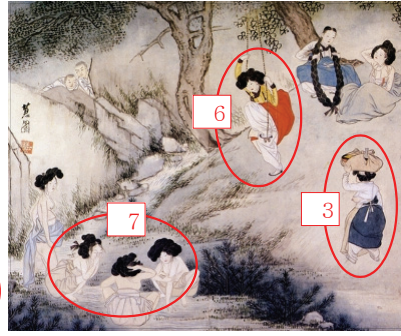
※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후기 단오 무렵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자.



작자미상 '경적도'



김홍도의 '씨름'



신윤복의 '단오풍경'

단오는 한국의 4대 명절의 하나로 일명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 '오월절(五月節)'이라고도 한다. 특히 '술의날', '수릿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술의'와 '수리'는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기구였던 수레를 뜻하는 것이다. **1** 모내기를 이제 막 끝낸 단오 무렵 조선후기 사람들의 생활모습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자.

1 모내기

다음은 **정학유(1786~1855)의 『농가월령가』 5월령**의 일부이다. 이것은 ()이 보급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벼·보리 ()을 하고 있는 농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 단오를 전후한 시기는 매우 바쁜 때임을 알 수 있다.

오월이라 여름 되니 망종 하지 절기로다
 남쪽 바람 때 맞추어 **보리 추수** 재촉하니
 문 앞에 터를 닦고 **보리 타작** 하오리다
 드는 낫 베어다가 한 단 두 단 헤쳐 놓고
 도리깨 마주 서서 흥을 내어 두드리니
 불고 쓴 듯 하던 집안 갑자기 벽적인다
 가마니에 남은 곡식 이제 곧 바닥이더니
 중간에 이 곡식으로 입에 풀칠하겠구나
 이 곡식 아니라면 여름 농사 어찌할까
 천심을 생각하니 은혜도 끝이 없다
 목동은 놀지 말고 농우(農牛)를 보살피라

그루같이 **모 심기** 제 힘을 빌리리라
 보릿짚 말리우고 솔가지 많이 쌓아
 뿔나무 준비하여 장마 걱정 없이 하소
 ……

오월 오일 **단오날** 물색(物色)이 생신(生新)하다
 오이밭에 첫물 따니 이슬에 젖었으며
 앵두 익어 붉은 빛이 아침별에 눈부시다
 트이지 않은 목청으로 자주 뽑는 저 소리는
 햇닭이 연습 삼아 물어보는 노래여라
 향촌의 아녀들아 추천을 말려니와
 청홍상 **창포비녀** 가절(佳節)을 허송마라

▷ 모내기법(이앙법)의 보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해 보자.

② 갓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의 신분은? ()

갓을 쓴 양반, 털범거지를 쓴 마부,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

이들이 함께 모여 씨름을 지켜보고 있다. 이 그림은 신분 해체가 진행되던 정조 시대의 풍경! 조선 후기 신분 해체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③ 이 여인의 신분은? ()

다음 자료는 오희문의 『쇄미록』의 일부이다. 이 자료를 통해 노비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유추해 보자.

▶1595년 5월 18일

송노, 분개, 복지 등에게 전날 제초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울무밭의 제초를 하게 하고 좁쌀밭의 김매기도 하게 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소나기가 내려 좁쌀밭의 제초를 다하지 못했으니 안타깝다. 그런데 울무밭 독에 한복을 시켜 찰수수 한 되의 종자를 심게하였는데 겨우 한 두독을 심었을 뿐이고 그 싹도 덩성덩성 자랐다. 필시 한복이 그 종자를 훔쳐 자기 밭에 뿌렸을 것이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④ 단오절의 유행 품목은 다름 아닌 ()였다. 이 무렵이 되면 모내기도 끝나고 서서히 더위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채를 선물하는 풍속이 있었다. 또한 부채를 만들어 왕에게 진상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단오선(端午扇)’이라 했다.

⑤ 씨름, ⑥ 그네뛰기, ⑦ 창포물로 머리감기

단오날 남자들은 ()을 여자들은 ()를 주로 하였다. 또한 부녀자들은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기도 하였으며, 창포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하였다.

⑧ 서민들이 그림 속에서 웃음을 찾길 원했던 김홍도가 숨겨놓은 수수께끼는 무엇이였을까?

여관 앞 나그네 모양새며 때나무와 오이 파는 모습, 종과 여승, 불자들과 붓짐꾼이며 거렁뱅이 등등을 형형색색 각기 그 묘를 다하여 그렸다.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도 한번 화권을 펼치면 모두 턱이 빠지게 웃으니 고금의 화가 중에 없던 일이다.

-이용휴-

▷다음과 관련하여 조선 후기 풍속화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자.

이와 같은 학습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업지도안을 작성해 보았다. 본 수업에서는 모내기법의 확대에 의한 경제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농업의 발달이 사회변동에 끼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농민들의 삶을 추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

도입부분에서는 전시학습상기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시간에 배울 모내기와 관련된 「경직도」와 함께 진주 지산농요를 들려주며 동기를 유발한다.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서는 학습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되 세부 내용 즉 광작의 유행, 부농의 출현, 농민층의 분화, 상품작물의 재배 등과 같은 내용은 교과서를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학습지에 제시된 자료들을 학생 스스로 해석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발문을 통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의식 수업의 단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표6> 생활사 학습 수업지도안

수업 지도안			
대 단 원	Ⅲ.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양 열강의 침략적 접근	소 단 원	2. 근대 사회를 향한 움직임 (2-4)피지배층, 생산력 증대에 노력하다
학습 목표	①모내기법의 확대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사회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②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단 계	교 수 - 학 습 활 동		
도 입	▶전시학습상기		

	<p>7년에 걸친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인구는 격감했고, 농촌이 황폐해져 경작 면적도 줄어들게 되었다. 기근과 질병이 전국을 휩쓸고 농촌 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된다. 토지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도적 떼가 되어 양반 지배층과 정부에 항거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양반 지배 체제의 위기로 인식한 지배층은 수취 체제의 개편을 통해 농민의 조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농민들도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질문하며 오늘 배울 내용과 연계시킨다.</p> <p>▶학습동기유발</p> <p>이번시간에 배울 모내기와 관련하여 ppt 슬라이드에 「경직도」와 함께 『진주지산농요』를 들려주며 동기를 유발한다.</p> <p>▶수업목표제시</p> <p>①모내기법의 확대에 의한 경제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②농업의 발달이 사회변동에 끼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③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농민들의 생활을 추체험할 수 있다.</p>
<p>전 개</p>	<p>▶모내기법의 확대 : 학습지 ①번</p> <p>양난이후 황폐해진 농경지의 생산력을 증대해 나가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모내기법의 확대였음을 설명한다. 모내기법으로 벼를 재배할 경우 농민들이 어떤 순서로 농사를 짓는지 교과서에 제시된 김홍도의 「논갈이」 → 작자미상의 「경직도」 → 김홍도의 「타작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농민들의 삶에 대해 설명한다. 학습지의 주제는 ‘조선후기 단오날의 풍경’으로 단오는 모내기 무렵에 있는 세시풍속의 하나임을 주지시킨다. 학</p>

생들에게 학습지에 제시된 『농가월령가』를 통해 모내기법의 이점과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발표해 보도록 한다. 이후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광작의 유행, 부농의 출현, 농민층의 분화, 상품작물의 재배 등에 대해 설명한다.

▶**양반의 복식, 신분제의 해체 : ②번**

김홍도의 「씨름」에 등장하는 갓을 쓴 양반과 상민들이 모여서 함께 씨름을 구경하는 모습에서 신분 해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조선 후기 신분 해체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모내기법의 확대에 의한 부농의 출현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신분제의 변동에 관한 내용 ‘2-6 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한다.

▶**노비들의 삶 : ③번**

신윤복의 「단오풍정」에 등장하는 노비의 모습과 오희문의 『쇄미록』에 제시된 노비의 생활을 보고 노비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단오날의 풍속 : ④, ⑤, ⑥, ⑦번**

학습지에 제시된 「경직도」, 김홍도의 「씨름」,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보고 학생들이 감상한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후 동영상 『화인열전』을 상영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지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단오날의 풍속으로 ②부채를 선물하는 풍속, ④씨름, ⑤그네뛰기, ⑥창포물로 머리감기가 있음을 설명한다.

▶**풍속화의 유행 : ⑧번**

동영상에 제시되어 있는 서민들이 그림 속에서 웃음을 찾길 원했던 김홍도가 숨겨놓은 수수께끼는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질문한

	<p>다. 조선후기에는 이와 같은 풍속화가 유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한 내용은 '2-8 문화의 주체가 다양해지다'에서도 다루고 있으므로 간단히 설명한 후 넘어간다.</p>
<p>정 리</p>	<p>▶배운 내용 요약 및 정리 이번 시간에 배운 모내기법의 확대, 광작의 유행, 상품작물의 재배, 농민층의 분화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한다.</p> <p>▶차시학습예고 이번 시간에 배운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다음시간에는 '2-5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다'에서 수공업·광업·상업의 발달을 배우게 될 것을 주지시킨다.</p>

VI. 맺 음 말

이 연구는 생활사가 ‘과거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의 모습의 구현’을 추구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진행하였다. 생활사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조선후기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에 이용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여 고등학교 한국사수업에서 효과적인 생활사 수업방안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생활사의 개념과 연구 동향을 정리해보았다. 한국사학계에서의 생활사 연구는 거대 담론에만 몰두한 역사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과거 사람들의 경험과 삶을 중심으로 역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의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생활사 연구가 꾸준히 진척되어왔으나 생활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생활사가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분과나 연구방법으로 간주되지 않고 경제사·사회사·문화사·민속학·복식사·제도사 등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생활사 교육 또한 독립된 학습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사 교육에 대한 연구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III장에서는 역사교육에서 생활사 학습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인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과연 조선후기 생활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조선후기 생활사 교육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현행 6종 『한국사』 교과서를 경제사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생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술은 드러나지 않았다. 생활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를 실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생활사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IV장에서는 경제사 분야의 생활사 교육에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문헌자료와 비문헌자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생활사와 관련된 교육 자료는 매우 광범위하기에 여기서는 활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문헌자료로는 일기류, 편지류, 고전소설을 비문헌자료는 실물자료와 그림자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헌자료는 대부분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역본의 유무가 곧 활용가능성을 나타내었다. 비문헌자료의 경우 실물자료와 그림자료 모두 문헌자료에 비해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가 존재하므로 그 활용가능성은 더 크다.

V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생활사 교육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학습지를 통해 다양한 문헌자료 및 비문헌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도록 유도하여 역사적 상상력과 사고력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역사적 감정이입을 통해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문헌자료인 오희문의 『쇄미록』과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비문헌자료인 작자미상의 「경직도」, 김홍도의 「씨름」과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활용 하여 단오날 조선후기 사람들의 생활상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김홍도의 ‘씨름’은 이와 관련된 동영상자료 지식채널e의 『화인열전』⁸⁴⁾을 활용하여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생활사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의 모습을 구현해 냄으로써 과거를 좀 더 친숙하게 그려내고 있다. 생활사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주제로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대중

84) 지식채널e, 『화인열전』, 2006년 4월 3일 방영

화가 나아갈 방향을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서 문제의식을 가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생활사 교육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과거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의 모습을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교사는 생활사 수업에 관한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업을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과거 사람들의 삶을 추체험하고 감정이입적 이해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활사 중심 역사교육이 앞으로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연구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자료>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0
이인석 외, 『고등학교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0
정재정 외,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2010
최준채 외, 『고등학교 한국사』, 법문사, 2010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0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0

<저서>

- 강명관, 『조선풍속사1 조선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푸른역사, 2010
_____, 『조선풍속사2 조선사람들 풍속으로 남다』, 푸른역사, 2010
_____, 『조선풍속사3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다』,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3- 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한중, 『역사수업의 원리』, 책과함께, 200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강, 1996
박대순, 『농기구』, 대원사, 1990
신병주 외,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들베개, 2002
이이화, 『이이화의 역사풍속기행』, 역사비평사, 1999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2008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1』, 청년사, 2001
_____,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2』, 청년사, 2001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하영휘, 『양반의 사생활』, 푸른역사, 2008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1』, 역사비평사, 1996
_____,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_____, 『조선시대 생활사3』, 역사비평사, 2006
한국역사연구회, 『20세기 역사학, 21세기 역사학』, 역사비평사, 2000
허인욱,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 들베개, 2010

<논문>

강선주, 「생활사 교육의 내력과 방향」, 『역사교육95』, 역사교육연구회, 2005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 -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일지사, 2000
김성희,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장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8권, 한국가정관리학회, 2000
김인걸, 「현대한국사학의 과제」, 『20세기역사학, 21세기역사학』, 역사비평사, 2000
문기상, 「일상생활사」, 『역사교육57』, 역사교육연구회, 1995
서용희, 「비문자자료를 통한 역사이해와 역사학습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송재용,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관·혼·상·제례」, 『한문학논집』 제30집, 근연한문학회, 2010
우인수,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3·24합본, 역사교육학회, 1999
유승주, 「광업의 발달」, 『한국사』 33 - 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이성임, 「조선중기 유희춘가의 물품구매와 그 성격」, 『한국학연구』 9,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8

_____, 「16세기 양반관료의 외정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이연경, 「고등학교 국사 수업에서 생활사 학습 방안」, 『역사교육논집』 제 41집, 역사교육학회, 2008

이정수, 「조선 후기 노상추가의 재산변동과 농업경영」, 『지역과 역사』 제29호, 부경역사연구소, 2011

정연식, 「한국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2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 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 연구 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정해은, 「조선 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 『한국사연구』 제143호, 한국사연구회, 2008

ABSTRACT

Life history educational research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Shin, seon-kyoung
Dept. of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microscopic approach on a historical study for understanding cultures and daily lives has grabbed growing attention since the 1990s over a macroscopic argument or a structural analysis although it had been of less interest. The movement has triggered changes to expand the scope of historical studies and given potentials for the diverse historical studies. One of the impacts is a vitalized study on a life history.

The life history study aims to give a comprehension of human life, targeting human's experience and life. Therefore, the education of a life history embodies the detailed and vivid lives of people in the history, offering a benefit to bring a greater interest and attention on history for students to get familiar with history. The methodology of the life history education to utilize both bibliographic data and non-bibliographic data leads to students' historical imagination and thinking skills, helping students to learn the way people lived and thought through re-enactment.

With the conclusion that the life history is the embodiment of detailed

and vivid lives of people in the history, this study intends to give a direction for the effective life history education through a wide variety of educational materials which can arouse interest of student. This study only covers the histo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economic history, taking the limitless scope of the study into account. First of all, the performance of the life history study in Korean historical academia is discussed and followed by analysis economic history-centered life history in the late Joseon described on the current Korean history textbook studied in high schools, called 'Hankooksa'. Then, the effective teaching plan for the Korean history class is made from available data for the education of the life history in the later Joseon.

The study on the life history has been performed under a quite vague concept in spite of its steady progress since the 1990s in Korean academia. Thus, the education of the field has yet to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study. Meticulous research on how current six kinds of Korean history textbooks explain the life history in the economic perspective has found that those books did not include any description directly related with the life history. The books embraced various bibliographic data and non-bibliographic data, however, still many shortcomings.

Indeed, the chances to find data translated into Korean indicated the availability of data since most bibliographic data available for the life history education wa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For non-bibliographic data, pictures and objects were respectively investigated. It bears the higher availability than the bibliographic data with a greater outcome of

the study.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the life history study from the late Joseon based on the referred view aims to lead students to grasp and analysis the materials prepared from diverse bibliographic data and non-bibliographic data. It also brings up students' historical imagination and thinking skills and, furthermore, guides them to learn history vividly through historical empathy, re-enactment.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e late Joseon are reconstructed with utilization of the bibliographic data such as the Swaemirok(瑣尾錄) by Oh Hui-Mun and Nonggawolryeongga(農家月令歌) by Jeong Hak-Yu, and the non-bibliographic data such as Kyeongjikdo(耕織圖) by an unknown author, Ssireum by Kim Hong-Do and Danopungjeong(端午風情) by Sin Yoon-Bok. A video clip related with Ssireum by Kim Hong-Do, Hwainyeoljeon(畫人列傳) which was broadcasted in Jisikchaeneol-e is practically us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history.